

# 문재인 11연승…대세론 굳히기

민주 경선 대구·경북서도 1위…과반 유지

주말 경기·서울서 결선투표 여부 판가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11연승을 달렸다.

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50.8%로 과반을 유지, 결선투표 무산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았다.

◇대세론 굳히나=문 후보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지역순회경선에서 유효투표수 1만8048표(투표율 58.0%) 중 1만2155표(56.9%)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두관 후보는 3621표(20.1%), 손학규 후보는 3214표(17.8%)를 획득했다. 정세균 후보는 938표(5.2%)를 얻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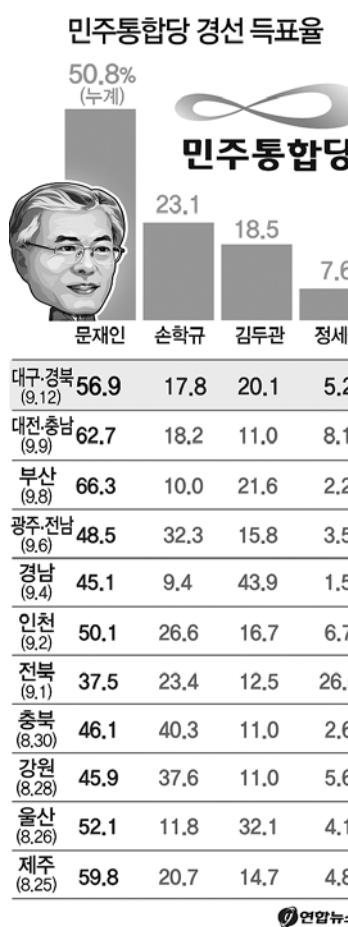
누적 득표율 면에서도 문 후보는 50.8%(13만937표)로 직전 순회경선에서 회복했던 과반 득표율을 유지했다. 순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23.1%(6만3433표), 18.5%(5만603표)로 격차가 4.6%포인트였다. 정 후보는 7.6%(2만841표)였다.

문 후보는 개표 직후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화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 변화의 희망이 저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경선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선 주목=이제 남은 지역순회경선은 이번주말 2연전으로 진행되는 경기와 서울 경선이다. 주목할 점은 이곳의 선거인단 규모가 전체 선거인단(약 108만명)의 49%에 달하는 52만명이라는 것이다. 즉, 그동안 기류와 전혀 다른 투표가 이뤄질 경우 수리적으로는 경선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의 바탕일 뿐이고 현재의 순위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다. 즉, 문 후보의 1위는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사는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유지,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질 수 있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미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고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도 압승,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비문후보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선투표를 하는 게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 결선투표가 가능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반 유지 여부의 최대 변수는 지역순회 경선 직전인 지난달 14~15일 실시돼 마지막 순회경선일인 오는 16일에 발표되는 권리당원 11만여명에 대한 모바일투표 결과다. 이 투표는 문 후보의 대세론이 만들 어지기 전에 실시됐기 때문에 비문 후보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선 시작 전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문·손·김 등 세 후보가 박빙이었고 순회경선에서도 대의원·당원투표에서는 손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2위를 달리는 손 후보 측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전, 문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고비마다 安 등장…문재인 곤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응집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중 주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안 원장이 등장해 문 후보에게 쏠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신뢰도 95%, 오차 ±2.5%포인트)으로 전화면접의결(RDD)

방식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양자대결에서 44.2%의 지지를 얻어 안 원장(34.5%)을 9.7%P 차로 앞섰다. 문 후보 측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흥보에 열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안 원장의 출마 언급이 나오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안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의 ‘불출마 협박’을 폭로한 지난 6일 역시 문 후보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날은 민주당 경선 중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광주·전남 경선이 예정돼 있었다.

문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상징성을 지닌 이 경선에서 과반에 유탁하는 48.5%의 지지율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운동 불출마 협박 논란에 집중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수익성 최상

###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뷔페식당
- 면적 : 2,400m<sup>2</sup>(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 1,800만

###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 면적 : 2,824m<sup>2</sup>(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 2,200만

### ③ 도심형 생활주택

- 961m<sup>2</sup>(290P)
- m<sup>2</sup>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수익11억

### ④ 25억=월2,400만

- 대지1,342m<sup>2</sup> 건물 5,700m<sup>2</sup>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인혁당 사건 유가족 '피눈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2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를 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인혁당 발언’ 박근혜 연일 심자포화

민주통합당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과 관련, 박 후보를 맹공했다. 이는 박 후보의 취약점인 역사인식 문제를 부각 시킴으로써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가 하루 만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걸음 물러섰지

말을 했다”고 암昧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에게 먼저 효도해야 한다”며 “박 후보는 국민을 외칠 게 아니라 100% 사파로부터 외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가세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박 후보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잘 되새겨보시고 그 결론을 12월 19일 투표로써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安 등판 카운트다운…민주 관계설정 고심

민주통합당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과 관련, 박 후보를 맹공했다. 이는 박 후보의 취약점인 역사인식 문제를 부각 시킴으로써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가 하루 만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걸음 물러섰지

만 “여전히 편협한 역사인식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정화되며 나섰다.

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민청화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옆방에 수감된 경기여고 생활교사 김현원씨와 나눈 대화를 소개한 뒤 “김 선생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사형됐다”며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 박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암昧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에게 먼저 효도해야 한다”며 “박 후보는 국민을 외칠 게 아니라 100% 사파로부터 외치라는 말을 드린다”고 가세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박 후보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잘 되새겨보시고 그 결론을 12월 19일 투표로써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는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주목하며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낮에는 민주당 후보, 밤에는 안철수 후보에 출마를 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 원장은 ‘선의의 경쟁’ 대상이지만 그 경쟁 내용이 대권이라는 입증한 사안”이라며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가운데 60명에 가까운 인사가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채 중립 지대에 머물고 있는 등 당내 ‘부동층’이 상당한 수준이다.

/임동행기자 tuim@kwangju.co.kr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 공증문서

### ■ 대여금

### ■ 법원판결문

### ■ 운송료

### ■ 각종채권

### ■ 구상금

### ■ 물품대금

###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 의료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별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부동산경매 텐세 노려라! NPL 투자 '열풍'

!!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 근자당 매입 후 경매당첨 수천만원~수억원 수익 !!

NPL 투자란? 부동산 담보부 NPL제(순위 대체권)을 싸게 매입하여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거나 직접 낙찰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NPL투자와 매력은? 일반경매보다 낙찰이 우월하며, 실무자금이 적고 (높은 대출금), 임도세를 내지 않는 등 고수익 투자상품이다.

❶ 제3기 NPL최고전문가 과정

♣ 개 강 : 9월 11일(화)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 오전반(10시), 아침반(7시)

\* 교육기간 : 9월 11일~11월 6일 / 2개월과정

실전투자 교수진

이 준 교수

\* 한국NPL 경제연구소장\* 법무법인 '바른길', 자산관리팀장

\* 디와션NPL 실전투자 교수

\* PMG(박문기) 부동산NPL 투자 담당자/NPL 전임교수

\* 한국경인증개시협회 실무교수

특강: 이정근 교수\* 부실채권과 경매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PMG(박문기) 부동산NPL NPL 전임교수

◆ 무료 공개특강◆

내용 \* NPL의 믿고 수익을 얻는 방법

일시 \* 9월 7일(금) 저녁7시 /

\* 9월 9일(토) 오전10시

혜택 \* 사전에 억지 및 당첨수시

\* 수강료 10% 할인/교재20% 할인

Dawa (주)다와온션 ☎ (062)352-8589(대)

법원경매의 길잡이! www.dawauction.co.kr

남구 일산동 통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 천년빌딩 41동)

## 이자공인중개사

(급매) 광주 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 내 5층상가(대지166坪, 건평 470坪, 5층은 주택) 매가 17억(보증 6억 포함), 월수940만

### 임야